

남부지역 병아리콩 논 재배 시 적정 질소시비량

황정동^{1*}, 서종호¹, 김상열¹, 배현경¹, 이휘중¹

¹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,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[서론]

병아리콩은 비린내가 없고 고소한 맛이 나며 단백질과 칼슘,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도 높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이 알려지면서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. 국내 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, 논에서 재배 가능한 새로운 소득작물 선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병아리콩은 2015년과 2016년에는 4월 18일 파종하였으며 2017년에는 5월 16일 파종하였다. 재식거리는 60×15cm로 하였고, 질소시비량은 4, 6, 8, 10kg/10a로 4처리하여 시험하였다. 인산과 가리 시비량은 P₂O₅-K₂O=10-10kg/10a로 하였으며, 생육특성, 습해, 도복, 수량성 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질소시비량별 병아리콩 생육은 질소 8kg/10a를 시용하였을 때 경장은 58cm로 가장 컸고 협수도 62개로 가장 많았으며, 습해는 1 정도로 발생이 적었으며, 100립중은 30.4g으로 가장 무거웠다. 질소시비량별 병아리콩 수량은 배량(8kg/10a) 시비했을 때 186kg/10a으로 4kg/10a 보다 25% 증수하였다. 병아리콩의 질소를 8kg/10a(배량) 시비했을 때 소득이 599천원/10a으로 4kg/10a에 비해 소득이 33% 증가하였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1542018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주저자: Tel. 055-350-1166, E-mail. hcd0094@korea.kr